

한결같은 주의 생명!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 3월 28일~4월 2일 생명주일예배 4월 3일 오후 2시 중앙성결교회

아주 특별한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를 드린다.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공동 개최하는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회 '한결같은 주의 생명'과 '생명주일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한결같은 주의 생명'을 주제로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오전 6시 중앙성결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CGNTV와 중앙성결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오전 6시에 새벽예배를 드

리는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서빙고, 부천, 수원, 강동)에서도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여한다. 나머지 캠퍼스는 기존대로 새벽예배를 진행한다.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사역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3월 28일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담임), 29일 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 교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30일 이기복 목사(바른

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고문), 31일 함수연 회장(사단법인 프로라이프 회장), 4월 1일 박상은 원장(샘병원 미션원장, 한국로잔위원회 부의장), 2일 최형근 목사(서울신학대학 교수, 한국로잔위원회 총무)가 설교한다.

생명주일예배는 4월 3일 오후 2시 중앙성결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성경봉독, 회개기도 송혜정 대표, 오창화 대표, 전혜성 대표, 정영범 형제의 비파 연주 등이 이어진다. 설교는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담임)가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네 번째 주제 '땅'

이면지 사용, 화장지, 물티슈 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네 번째 주제는 '땅'이다. 일상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은 자연분해가 어렵다. 소각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 발암 물질, 중금속, 온실가스 등이 배출되면서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땅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면지 활용하기, 화장지, 휴지, 일회용 물티슈 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등을 실천한다.

3월 셋째 주에는 '물'을 주제로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창 1:9)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물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작은 실천을 이어나갔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3월 2일(재의 수요일)부터 오는 4월 16일과 17일 부활주일까지 이어진다. 참여하는 인증 사진과 한 줄 소감을 카카오톡 '창조질서회복' 또는 문자메시지(010-6442-0191)로 보내면 소감을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관련기사 4면).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4월 10일까지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전 세계적인 낙태 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4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기도 봉사자들이 낙태 종식과 낙태 반대, 태아 생명 존중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위운동이다. 지난해 9월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열리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기도 봉사를 담당했다.

이병찬 집사(강남B공동체)는 "전 세계에서 이어지는 생명을 위한 기도운동을 통해서 낙태 지지자들이 낙태 반대로 돌아서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고 했고, 윤효근 형제(오륜교회는)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서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낙태하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생명나눔의 기적 마지막 한 달!

생명나눔의 날 2차 행사 3월 20일 양재 주차장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는 캠페인이다. 현재까지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16개의 교회와 단체에서 성도 2,751명이 동참했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는 3천5백만 원 가량 모금했다.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찾으면 된다. 헌혈카페에서 헌혈하고 헌혈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구매하면 소아암 어린이가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서 모금된 헌혈증과 수술비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소아암 어린

이 가정에 전달된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4월 17일 부활절까지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

생명나눔의 날 2차 행사도 이어진다. 지난 3월 5~6일 서빙고온누리교회에 이어 3월 20일 양재온누리교회에서도 생명나눔의 날 행사가 열린다. 생명나눔의 날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교회 로비에 마련된 헌혈 대기 장소에서 신청도 가능하다(관련기사 5면).

문의: 02-570-7523

예배 예약 시스템 변경 '좌석 QR코드 시스템'만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시행 중단에 따라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출입구를 모두 개방한다. 예배 예약 및 바코드 확인 없이도 교회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좌석 QR코드 시스템'은 계속 운영한다.

3월 비전헌금 6억1,200만 원 봉헌

지난 3월 12일(토)과 13일(주일) 봉헌한 비전헌금이 6억1천2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비전헌금은 우크라이나 난민과 울진·삼척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는데 사용된다. NGO 더멋진세상이 주축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난민 임시수용소에 식량 및 위생용품, 의류를 지원한다.

자녀양육 Q&A 아버지의 사랑법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아버지들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른다. 많은 아버지가 표현에 서투르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내가 돈 벌 어다 주고, 입혀 주고, 먹여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 주는 게 사랑이지. 남자가 간지럽게 뭐 그런 말을 해?’ 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좋은 울려야 좋다. 사랑은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물은 퍼낼수록 깊어지고, 그 양이 많아지고, 깨끗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품어서 자신도 성숙하고 상대방도 성숙시킨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어느 대학교에서 ‘부모 용서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 일이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나와서 자기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데 25년이 걸렸다고 했다.

“25년 동안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는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가 전부였어요. 그것이 제게는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제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않는데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여자아이들일수록 손을 꼭 잡아주거나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한다. 여자아이의 경우 신체 접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격려하는 힘이 있다. 사랑은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사랑하는 자는 목숨을 건다.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 사랑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방임이 아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지 상대방을 과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녀를 과멸로 이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권위와 훈계가 필요하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나 권위는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사랑이 없는 권위는 권위주의가 된다. 그것은 독재가 되기 쉽다.

사랑은 배려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아이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아이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 “사내자식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라고 욕박지르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격려하는 힘이 있다.

사랑은 배려다.

사랑은 상대방을 아는 것이다.

사랑은 존중해주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사랑은 상대방을 아는 것이다.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과잉보호는 위험하다. 사랑하는 대상을 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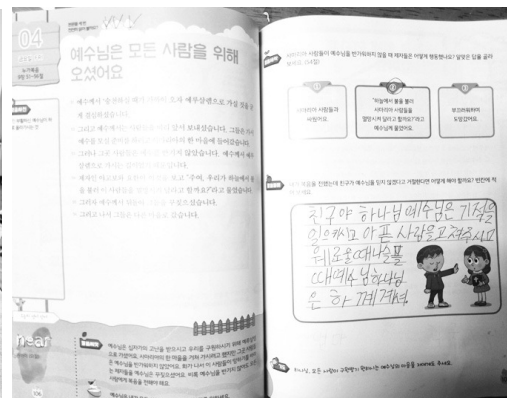
과잉보호하는 사랑에서는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랑은 존중해주는 것이다.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아이의 개성을 인정하고 개발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은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이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자녀들은 아버지의 용기를 통해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사랑을 받아들이고 표현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사랑이어야 한다.

우리들 작품 말씀을 먹고 마시는 차세대

“QT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빙고 유년1부 2학년 6반 강현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이나 학교에 다녀온 후에 QT를 하고 있어요. 제가 QT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 QT를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차세대 ‘QT하고 빙수먹자’를 하면

서 QT를 시작했어요.

지난달에 QT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2월 24일에 했던 누가복음 15장 17~23절 말씀이에요. 제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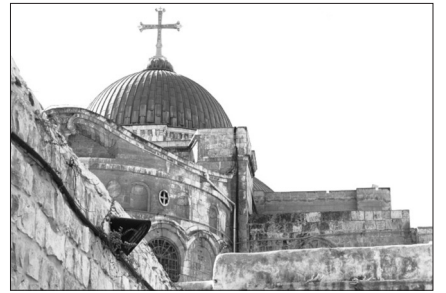
에게 “저는 더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받아주고 잔치를 열어줬어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QT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었어요. 제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QT를 하루도 빠짐없이 할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요. QT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에요. 친구들에게도 꼭 QT를 추천하고 싶어요. QT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생활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 강현아 학생(서빙고 유년 1부, 초등 2학년)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저학년용
3월 15일 본문(누가복음 21장 11~15절)



1.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말씀해주셨어요. 다음 보기 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① 큰 지진 ② 기근 ③ 전염병 ④ 귀신이 나타남 ⑤ 제자들이 감옥에 갇힘

2.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나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세요.

“너희의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맞서거나 ()과 ()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눅 2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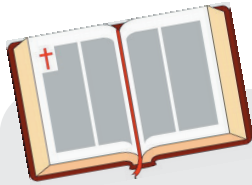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글: 그림 명난희

17. 어린 아이와 같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한다

야고보서 3:1~12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혀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서 주신 소중한 선물은 말하는 능력입니다. 같은 종류의 동물들도 서로 소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리나 몸짓, 냄새 등 그들만 아는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언어로 말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주신 말하는 능력은 우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교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인간의 존귀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말이 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말이 가져오는 혼란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온전한 영적 성숙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영적 성숙과 온전한 믿음의 또 하나의 증거를 3장에서 말씀합니다. 말의 사용입니다. 우리의 혀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어할 수 있다면 온전한 믿음에 이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 열매는 분명 우리가 길들이고 제어하기 힘든 언어까지 포함합니다. 만일 말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밖의 모든 영역에서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혀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한 믿음은 혀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혀를 제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혀

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2절b).

말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작은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한마디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방향이든 죽음으로 향하는 방향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달리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입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빠르고 편안한 도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이 어떻게 제어되는지를 봤을 것입니다. 말의 입에 물릴 작은 재갈을 통해서 그 힘 센 말을 제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혀의 기능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말에게 재갈을 물려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어하듯이, 우리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큰 배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작은 키든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키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항해사가 키를 붙잡고 배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을 혀로 행하는 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내뱉은 말을 자신이 다시 먹으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0-21, 개역개정).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먹고 삽니다. 자신의 말이 독인 줄 모르고 계속 먹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자신의 말이 약과 같은 사람은 그 말을 먹고 곧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악독한 말을 내뱉습니다.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말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의 방향도 결정짓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귀 기울이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죄, 마음, 구원의 필요성 깨닫게 하는 혀

둘째, 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반부에 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불의입니다. 혀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지옥불’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의 혀는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버립니다. 또한 ‘지칠 줄 모르는 악’입니다. 악은 쉬지 않습니다. 사탄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일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악의 통로가 우리 혀가 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말하는 우리의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이는 독’과 같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말이 독이 되어 사람을 죽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물을 가져다 놓고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고, 또 다른 물에는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에 따라서 물의 성분이 바뀐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이나 곡물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태가 바뀐다는 기록을 여러 차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구약에서 이사가 선지자가 죄악으로 가득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이사가 5장을 보면 여섯 차례에 걸쳐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선언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 선언은 자기 자신에게 전해졌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사 6:5).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된 이사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재앙은 자신의 입술에 더러움에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혀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스랍 중 하나가 재단에서 불붙은 숯불을 이사가 입에 대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는 사라졌고 네 허물은 덮여졌다”(사 6:7).

이사의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라면 우리의 입술도 더러운 입술입니다. 이사의 입술이 불붙은 숯불로 태워져야 했다면, 우리 모두의 입도 태워져야 합니다. 이사의 입술로

범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신다면 우리 모두의 입으로 범한 죄도 사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이사가 예언한 일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함 받은 사람이 입술로 범한 모든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가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사 53:7).

십자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그 고난이 너무 심각해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깊은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고난 속의 침묵은 우리의 모든 입으로 행한 죄를 구속하시는 대속의 침묵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만 입을 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인식하게 하는 혀

셋째, 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이후 자신의 입을 다시 열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스로는 입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시 51:14~15).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닫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주께서 용서하심을 확인했을 때 혀가 다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은 자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열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에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4면에 계속)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가족이 다 함께 창조질서 회복!

김진국, 마도카 선교사네·김한수, 정수련 성도네의 실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한창이다. 지난 3월 2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16일과 17일 부활주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창조질서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창조질서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 3월 셋째 주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창 1:9) 말씀을 묵상하고, 깨끗한 물을 회복하는 작은 실천을 했다. 김진국, 마도카 선교사(서빙고 일본어예배, 일본 Hongodai Christ Church 스포츠선교 담당, Athlete Church Ministry 대표)네와 김한수, 정수련 성도(양천공동체)네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폐목재를 주워 벽난로에 불을 붙이는 김진국, 마도카 선교사네(사진 왼쪽 상하)와 환경을 위해 양치컵, 이면지 활용을 실천하는 김한수, 정수련 성도네(사진 오른쪽 상하).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웠더니 주민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쓰레기봉투를 건네주시는 분도 계시고, 칭찬하며 말을 걸어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왔냐’고 물으시길래 이때다 싶어 예수님을 몸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복음 전하는 기회로 이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김진국, 마도카 선교사네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또 있다. 벽난로 불쏘시개로 휴지와 폐목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지금 선교 베이스캠프로 지내고 있는 동북중앙교회에서는 난방기구로 벽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난로를 보며 불을 피우기 위해 낭비되는 자원이 없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실천 목록을 보고 휴지나 종이 등을 재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동북중앙교회는 근처에 폐목재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버려지는 폐목재를 얻어다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희도 함께 참여해 매일 폐목재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닦은 휴지나 쓸 수 없는 종이 등도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국 선교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건강하게 물려주는 꿈을 꾸고 있다.

“어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생명을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줄 의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마음 편히 숨 쉬고 뛰어놀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작은 것부터 매주 하나씩!

김한수, 정수련 성도(양천공동체)네는 매일 저녁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다. 요즘은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평소에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나

누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회 프로그램 이야기도 나눕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참여하면서는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환경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시청하고 소감을 나누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김한수, 정수련 성도네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주제별 실천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성경의 창조 순서에 따라 매주 바뀌는 실천사항들을 한 가지씩 실천하고 있다.

“매주 창조 순서에 따라 바뀌는 실천사항들을 보면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가지씩 꼭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천하고 있던 것들은 계속 이어가고요. ‘빛’을 주제로 한 첫째 주에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 전기 소등하기, ‘공기’를 주제로 한 둘째 주에는 건거나 자전거 타기, ‘물’을 주제로 셋째 주에는 양치컵 사용하기 등을 실천했습니다. 아이들도 즐겁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빠 김한수 성도는 매일 출퇴근길 걷기를 실천하고, 엄마 정수련 성도는 쓰지 않는 전기를 소등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실천을 하고 있다. 어느새 일상이 된 엄마 아빠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고 김시우(서빙고 꿈땅, 초등 6학년), 김연우(서빙고 꿈땅, 초등 2학년) 남매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사항을 정했다. 김시우 학생은 이면지를 활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있다.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면지를 쓰기로 했어요. 이면지를 사용하면 종이를 아낄 수 있어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전거도 배워 보려고 해요.”

김연우 어린이는 동물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었다. 양치컵 사용하기부터 실천하고 있다.

“환경이 오염돼서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대요.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아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동물들도 우리랑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아껴 쓰려고 양치컵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과 어른들도 다 함께 환경을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김진국, 마도카 선교사(서빙고 일본어예배, 일본 Hongodai Christ Church 스포츠선교 담당, Athlete Church Ministry 대표)네는 올해 집을 버렸다. 집에 머무는 대신 작은 캠핑카를 타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다. 육상선수 출신 김진국, 마도카 선교사는 체육을 도구로 일본 교회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아끼고, 생명을 보호해야 하듯이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희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찬양제조’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찬양제조는 몸을 통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과 세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등산, 하이킹, 탁구, 육상교실, 스포츠 페스티벌 등 음악 예술 스포츠를 개최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마음을 여는 전

도의 장을 마련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국, 마도카 선교사네가 스포츠 선교 외에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는 게 또 하나 있다. 머무는 마을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일이다. 자녀들과 함께 매일 마을을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

“처음부터 쓰레기를 주웠던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마을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쓰레기를 보고 주웠는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 하더군요. 두 손 가득 쓰레기를 주우면서 뒤따라오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쓰레기봉투를 챙겨와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수풀 사이에 떨어진 쓰레기도 주울 만큼 온 가족이 열심히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김진국, 마도카 선교사네를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 전할 기회로 삼았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로 사랑을 전해주세요!”

임근삼, 조성춘 성도가 20년 만에 헌혈한 이유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위기 상황이다. 최근 오미크론 대확산 등으로 헌혈 참여가 더욱 위축되면서 혈액보유일수가 3일을 겨우 넘기고 있다. 3월 18일 기준 3.1일분(O형 2.6일분, A형 3.1일분, B형 3.8일분, AB형 3.1일분)에 불과하다. 혈액보유일수가 3일 미만으로 떨어져 혈액수급위기 ‘주의’ 단계에 들어가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성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는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16개 교회와 단체에서 성도 2,751명이 헌혈했다(3월 18일 기준).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헌혈로 사랑을 전해주세요.”

지난 3월 6일(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주차장을 방문한 헌혈 버스에서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불러세우는 그 말에 발길을 멈추는 성도가 있었다. 임근삼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다.

“헌혈 버스가 교회 주차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꼭 헌혈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며칠 동안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헌혈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할지, 혹시 헌혈하고 내 몸에



임근삼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왼쪽)와 조성춘 성도(일산공동체, 오른쪽)가 헌혈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 20년 만에 헌혈을 했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별의 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헌혈 버스를 보는 순간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임근삼 성도는 헌혈 전 검진을 마치고 깜작 놀랐다. 마지막 헌혈이 20년 전이라는 기록을 봤기 때문이다. 이제야 용기 낸 것이 부끄럽고 미안했다.

“헌혈하기 전에 간단한 검진을 했는데 제가 20년 전에 마지막 헌혈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무관심했나 싶어 부끄럽더라고요. 헌혈 침대에 누워 헌혈을 시작했는데 5분이면 끝나더군요. 이게 뭐라고 오랜 시간 고민했나 싶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나누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쉽고 미안했습니다.”

임근삼 성도는 헌혈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온누리교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헌혈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피(血)로 문제를 회복한다는 뜻이 담긴 ‘피로회복’이라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 말 덕분에 오랫동안 미뤘었던 헌혈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내 피로 이웃에게 생명을 나

누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귀한 행사를 마련해준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헌혈에 계속 동참할 계획입니다. 1년에 5~6번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약속을 빠짐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조성춘 성도(일산공동체)도 같은 날 헌혈 버스에 탔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미루던 헌혈을 20년 만에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헌혈을 자주하는 아니었지만 가끔은 했던 거 같습니다. 헌혈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미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댄 시간이 어느새 20년이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으로 헌혈 버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을 따로 빼지 않고 편하게 헌혈을 할 수 있어서 큰 고민 없이 신청했습니다.”

조성춘 성도는 오랜만에 하는 헌혈에 꼭 성공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

“사실 지난해에 직장에서 헌혈할 기회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특정 약을 복용 중이거나 복용했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헌혈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 뒤로 또 포기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헌혈에 꼭 성공하고 싶어서 약 복용을 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보관 중이던 약 봉투를 챙겨서 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복용했던 약은 헌혈에 문제 되는 성분이 없어서 감사하게 헌혈할 수 있었습니다.”

헌혈을 마친 조성춘 성도의 마음에 감사가 가장 먼저 찾아왔다. 헌혈의 기쁨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헌혈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이웃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게 하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미뤘었던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헌혈만큼 즉각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헌혈로 이웃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직 헌혈을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셔서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기적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병혁 성도

·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몸을 조금 회복한 후 바로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혈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정광진 성도

·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 장재훈 성도

· 건강한 피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강주현 성도

· 세 번째 헌혈인데 가진 것을 나누는 소중한 경험을 오랜만에 한 것 같아 뜻깊습니다.

/ 김민성 성도

· 작은 나눔에 큰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시는 좋은 아버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성수 성도

· 생명나눔 기적에 동참하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온누리에 예수님의 피로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 이주선 성도

· 생명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훈 성도

· 마치 얼어붙은 상황 속에 얼음을 두드리고 깨어 생명의 나눔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길 소

망합니다.

/ 광동빈 성도

· 함께 할 수 있어 감사.

/ 정성우 성도

· 작년에 예배 때 헌혈 동참 광고를 보고 9월부터 2달에 1번씩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는 걸 왜 진작 안 했는지.

/ 정은혜 성도

· 헌혈하려고 했는데 마침 헌혈 버스가 눈앞에 보여서 얼른 들어가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제 피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 김석영 성도

· 오늘도 피를 나눌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 이진선 성도

· 13년 만에 헌혈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이

기회에 ABO 프렌즈에도 가입하고 꾸준히 이어가려 합니다.

/ 홍유진 성도

· 건강을 주서 온누리 생명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하상희 성도

· 주님의 희생과 혼신을 기억하며 제 피가 쓰이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퍼져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혈했습니다.

/ 신동철 성도

· 온 가족이 모두 헌혈할 수 있는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생명 또한 나눌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 이주용, 김명혜, 이호리, 이호빈 가족

· 올해도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320g의 피로 생명을 나누며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 박범식 성도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왜 우리가 낙태 반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

김민음(가명) 성도의 뼈아픈 경험 그리고 회복

낙태중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4월 10일까지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도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부터 13일까지 기도 봉사를 온누리교회가 담당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는 온누리교회, 신촌감리교회, 오륜교회, 가톨릭 단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아름다운 피켓(낙태반대운동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왜 낙태 반대를 위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기도해야 할까? 태아도 엄연히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사형제도는 폐지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 태아의 인권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제이훅(온누리교회 압양위락 커뮤니티) 가족들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함께 했다.

임신 10주차 태아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대략 3.5cm, 7g이다. 발 크기는 어립잡아 1cm 정도로 성인 여성의 새끼손가락 손톱보다 살짝 작다. 그 작은 몸에 있을 게 다 있다. 손가락, 발가락 각각 10개, 초음파로 눈, 코,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작고 작은 하나의 생명이다. 작지만 엄연한 생명인 태아가 너무 쉽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임신 14주까지는 특정한 사유가 없어도 낙태를 할 수 있다. 낙태는 태아뿐만 아니라 낙태 경험자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가져온다. 김민음 성도(36세, 남)의 사연을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생하게 알 수 있다. 그는 낙태 경험자다. 김민음 성도의 어머니가 자신을 낙태할 뻔했다는 것과 자신도 철없던 시절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기를 낙태한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으로 오랜 시간 방황하고 아파했다.

“너 닳아서 팔다리가 길고 가늘었어”

김민음 성도네는 친가, 외가 모두 몇 대째 신앙을 지켜온 크리스천 가정이다. 할아버지는 장로, 할머니는 권사였고, 그도 교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독실했다. 그런 그가 방향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고백의 영

향을 줬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낙태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모님 사이를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니가 혼전임신을 했고 할머니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주위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갔고요...”

낙태 위험에 빠진 김민음 성도를 구한 것은 어머니의 결단과 고모였다. 김민음 성도의 어머니는 예비 시부모의 성화로 수술대까지 올라갔는데 도저히 낙태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수술대까지 올라갔는데 도저히 저를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다 잃어도 이 아기는 포기할 수 없다고 울면서 결심하셨대요. 그렇게 수술대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모의 설득도 한몫했다.

“고모가 바로의 딸처럼, 천사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설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낙태가 무슨 소리냐,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피의 대가를 물으면 어떻게 할 거냐며 크게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이 결혼했고, 김민음 성도가 태어났다. 화목한 가정을 이뤘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김민음 성도가 받은 충격이

상당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김민음 성도의 조부모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손자바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기를 없애려고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어린 마음에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존재하지 말아야 했는데 태어난 게 아닐까?’ 하며 자책감에 시달렸다. 신앙도 무너졌다.

낙태 당할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김민음 성도가 낙태 가해자가 되었다. 고등학교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했다.

“여자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두세 달 뒤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임신했다고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김민음 성도가 취한 행동은 도망이였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리화하고 비겁해졌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였기 때문에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식은 상태였고,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지켜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로 상처 주고 회피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김민음 성도의 비겁한 행동에 상처받은 여자친구는 결국 낙태를 선택했다.

“제 부모님이 나중에 아시고 여자친구를 머느리 삼고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어린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여자친구가 낙태한 뒤였습니다. 낙태하고 여자친구가 ‘너 닳아서 아기 팔다리가 길고 가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살인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살겠다고 아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죽인 것입니다(울음).”

그날 이후 김민음 성도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그러나 속이 끓었다.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함, 배 속 아기를 죽였다는 참담함, 자신의 비겁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속앓이를 오랜 시간 했다. 그를 회복시킨 것은 아내와 신앙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과 교회에 한 다 리씩 걸치고 살았습니다. 주일에만 교회 가서 착한 척, 경건한 척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김민음 성도는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첫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30분 동안 대성통곡했습니다. 철없던 시절 보낸 그 아기가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아기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는 그 일로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상처 줬던 예전 여자친구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김민음 성도의 진심 어린 사과는 예전 여자친구의 가슴 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도 없앴다.

“여자친구가 사과해줘서 고맙다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받아주셨다니까 감사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자신도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묶여있던 것이 있었는데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김민음 성도가 울먹이며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했다.

“낙태를 배 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거로 생각하는 데 아닙니다. 낙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언젠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낙태를 생각하고 있거나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작고 어린 생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회는 계속 병들어갈 것입니다. 낙태한 사람들이 회개해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낙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힘없는 연약한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참가자 소감

“낙태를 반대하고 태아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시대의 흐름 때문에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래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해서 다행입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 이서연 자매

“의미 있는 기도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낙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윤호근 형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올바른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음세대는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미디어나 방송의 영향으로 잘못된 생각들이 주입되고 있습니다. 부모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기독교 성교육, 생명의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믿는 아들이 깨어 기도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 이태선 목사(오륜교회 청년부)

한계와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도하며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야!



이정환 목사
(도곡공동체, 책 〈내 마음이 아픔니다〉, 〈신앙의 사계절〉 저자)

이 세상에 위기가 없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기근, 전쟁, 전염병 등 셀 수 없이 많은 위기가 인류를 덮치고 또 덮쳤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까지 벌어져 전 세계가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가깝게는 회사, 가정, 개인에게도 위기가 닥친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노심초사하며 산다.

인류가 위기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당하는 이유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 완전한 동산에서 쫓겨나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위기에 쫓기게 되었다. 특히 준비 없이 맞이하는 위기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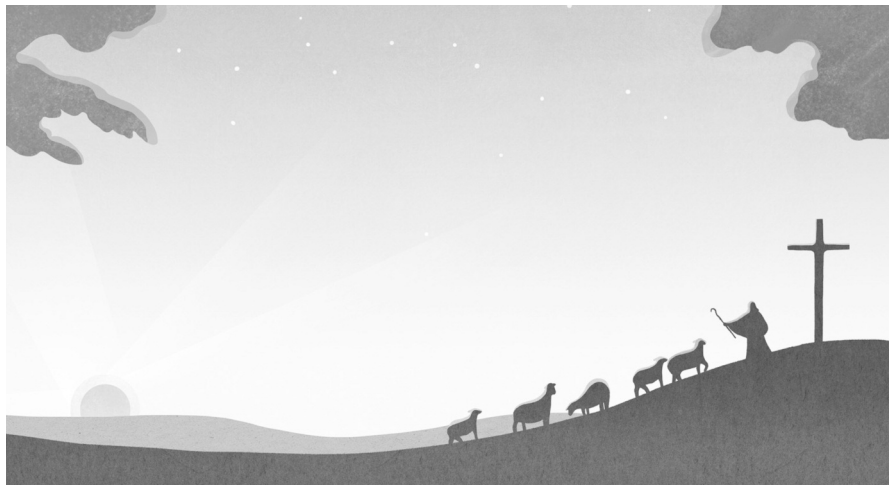
위기와 기회는 한 곳 차이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위협에 빠진다. 하지만 위기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위기와 기회는 한 곳 차이이다. 그래서 인류가 위기를 하나씩 극복해 나갈 때마다 문명도 함께 발전했다. 오히려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위기가 필요하다. 위기가 없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기 쉽기 때문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도 태평성대를 이룬 다음 교만하고 나태해졌기 때문이었다.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sign)이다. 혼자 극복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랬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눅 24:1~10).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다. 하지만 여인들은 위험천만한 무덤으로 달려갔다. 현실에서 도망



한계를 혼자 뚫고 나가려고 하면 답이 없다.

인간에게는 혼자 한계를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다.

기도하며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따라야 뛰어넘을 수 있다.

한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선물이다.

치는 대신 당당히 맞서기를 택한 것이다. 그 결과 무덤에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포에 떨던 여인들이 자신감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이 여인들 같아야 한다. 피하는 대신 맞서야 한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싸움을 시작하면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돌파하거나

위기와 한계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돌파하거나.

포기하려는 사람은 극단적이다. 한계가 다치면 무릎을 꿇는다.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저런 한계를 넘지 못하고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성경 속 열 명의 정탐꾼도 다 나버리는 포기형 인간이다.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절망했다. 눈으로 본 것에 기가 눌려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했다. 본인들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체념할 것을 권유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다.

상황을 방치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는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처한 상황에 몸을 맡겨버린다. 모든 것이 운명이고 팔자거나 한다. 성경에도 방치형 인물이 나온다. 베데스

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인데 38년 동안 중풍을 앓았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병에 걸린 것은 운명이야’라고 생각했다.

반면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계를 만나면 더욱 강해진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성경 속 최고의 돌파형 인간은 모세다. 앞은 홍해로 막혀있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거면 왜 데리고 나왔냐”며 비방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말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3~14).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다. 본인의 능력을 과신하지도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 한계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사도 바울도 한계를 돌파한 사람이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수월하게 마쳤다. 성격답게 세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도여행을 다녀왔다.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2차, 3차 여행까지 계획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 1차 여행 이후 바로 2차 여행을 떠났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며 두 번의 큰 위기를 만났다. 하나는 바나바와의 결별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힌 것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최고의 파트너였다.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는데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바울은 아니었다. 결국 그들은 각자 다른 길로 전도여행을 떠났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경로를 변경해서 반대 방향으로 떠났다. 계획이 시작부터 어그러졌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갔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행 16:1~10).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디모데를 예비해놓으셨다. 하나의 길이 막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신 다른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조금 낯설어도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로 가면 된다.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가 바울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다. “도대체 왜 막으시는 거죠? 저만 좋자고 이러는 건가요?”하고 투정했을 것 같다. 하지만 바울은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비두니아로 경로를 바꿨다. 안 된다고 해서 바꿨는데 하나님이 그 길도 막으셨다.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대신 기도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차린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났다.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길을 찾았다.

한계를 혼자 뚫고 나가려고 하면 답이 없다. 인간에게는 혼자 한계를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다.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선물이다. 모압, 암몬, 마온 군대가 연합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하나님이며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대하 20:12).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 좋은 딸이 되는 것부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수년째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도 교회 다니셨던 것 같은데 왜 마음이 돌아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있는 것 같다고만 하시네요. 목회자와 성도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와 담뽕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전도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이고, 그 다음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가진 아버지를 전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버지를 기다리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다급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너무 급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열려고 하다보면 오히려 더 닫힐 수 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두드려야 한다. 많은 사람

이 어떻게든 상대를 설득해서 교회에 받을 들이게만 하면 목사님과 성령님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일이 없지는 않지만 아주 적다. 오히려 그 억지스러움에 더 큰 실망을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되어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직접 담아 상대에게 다가가면 된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전도법 아닐까 싶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바보’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단단했던 아버지의 마음도 천천히 녹아내릴 수 있으리라 믿는다.

가족이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으로 무장하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해제한다. 하지만 어찌 보면 가정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다. 목회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울 수 있다. 함께하고 보이는 모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에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어렵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숨길 수 없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는 방법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 최고 전도의 도구이자 가장 기본적인 전도 방법은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너무 조금하게 교회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최

고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실망해서 다니지 않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긴다면 복음이 들어갈 틈새가 생길 것이다.

보통 종교가 다르면 가족이라도 가까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멀어지고, 멀어진 만큼 대상자와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기 마련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로의 초대 이전에 서로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아들딸이 아니라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 ‘좋은 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성민 목사
(SNS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가족상담

심리적 유연성과 긍정적인 재해석

“저의 아버지는 매우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입니다. 저와 형제들은 아버지를 늘 피하려 했고, 하루빨리 아버지의 권위적인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아버지는 대하기 불편한 분이십니다. 가끔 용기 내서 전화를 드릴 때면 운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됩니다. 간단한 안부를 묻고 나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대화에서는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자식 된 도리로 종종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편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라서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 아버지와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버지가 어렵다고 고백하곤 한다. 때로는 아버지가 넘지 못할 큰 산처럼 위압감을 주는 모습으로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능력하고 폭압적인 모습으로 마음에 남아있기도 한다. 원가족(原家族, 개인이 태어나서 자라 온 가정 혹은 입양되어 자라 온 가족)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고압적이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다. 결혼 후에도 경직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버지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

와 대화가 무미건조하거나 매우 사무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 길게 이야기할 내용이 없고, 간단히 몇 마디 하면 그다음 할 말이 없다. 감정적인 느낌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대화 내용에 다양한 금지어가 존재하기도 한다. 역기능적인 가정일수록 대화에서 금지하고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말과 주제들이 있다. 비합리적인 것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비합리적인 확신들로 인해서 역기능적인 규칙들과 금지어들이 생겨난다. 역기능적인 규칙 등에 의해서 자녀와의 대화 주제가 축소되거나 억압된다.

건강한 가정은 부모 자녀가 매우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라도 방해 없이 자신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그 모습이 수용되는 가정이 건강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가정에서는 열린 분위기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녀가 하는 이야기들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패턴은 자녀가 학령기를 지나 청소년기, 성년기에 접어들어도 지속되기도 한다. 그런데 자녀는 결혼 후 관계의 변화를 맞을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하면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위치에 서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했던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결혼하고 첫아기를 낳았을 때, 자신의 유아기를 어렵게 떠올리면서 “아버지는 어땠을까?”, “어머니는 어땠을까?”를

생각해보게 된다. 관계가 서먹하고 어려웠던 아버지로 기억하는 자녀들이라도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면 이전과 다르게 아버지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가족관계에는 항상성이 있다. 좋은 것이든 부정적이든 가족 안에 계속 진행된 규칙과 상호관계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대했던 가족 분위기라면 결혼을 했더라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를 대면하게 될 것이다. 연로해 지시고, 손주가 생겨서 이전과는 다르게 다정다감하게 대할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품고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한다. 여전히 자신의 의견이 거부당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아버지의 태도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경직된 대화를 다소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가족 규칙을 찾아보면 좋겠다. 금지된 말이나 주제들에 관해서도 탐색해보면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 분위기에서 성장한다. 이러한 가정 배경, 가족의 금기어, 불편해하는 대화의 주제는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때가 있다. 관계의 변화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겠다. 아버지의 부정적인 반응에 내성을 길러보는 것도 좋겠다. 고압적이고 가

부장적 아버지라면 자신이 기대하는 변화의 반응을 결코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여전히 과거와 다름없이 대할 수도 있다. 그때마다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다시 관계의 답을 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자신을 부정적, 혹은 고압적으로 대하는 듯한 말과 태도를 보이더라도 내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어떤 관계는 노력으로도 관계가 호전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자신을 탓하기보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도 괜찮다. 긍정적인 재해석도 도움이 되겠다. 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입장에 들어가 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셔서 사랑표현이 어려우신거야, 말을 못하시는건 충분히 의견을 말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거야’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와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는 결혼생활, 자녀와의 관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요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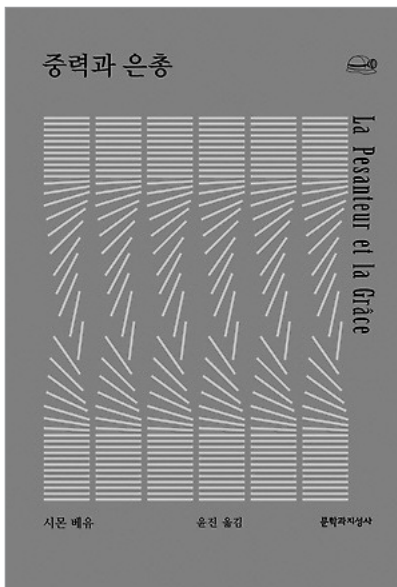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중력과 은총》

시몬 베유 저 | 문학과지성사 | 14,000원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 및 메타버스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요소는 ‘사색’ (思索, Contemplation)이다. 쏟아지는 정보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특히 기독교인은 시대 현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통찰을 얻기

위해 ‘묵상’ (默想, Meditation)해야 한다. 깊은 말씀 묵상은 성도들에게 큰 통찰을 얻게 한다.

시몬 베유(1909~1943)가 쓴 <중력과 은총>은 ‘기독교적 사색과 통찰’을 안겨주는 책이다. 변화의 흐름에 휩쓸려 따라가느라 자칫 삶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시대, 상실한 채 있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시대, 변화의 속도에 짓눌려 불안과 우울과 허무에 빠질 수도 있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을 가져오게 하는 적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책 제목이 <중력과 은총>인 이유가 책의 첫머리에 나온다.

“영혼의 모든 자연적 움직임은 물질계의 중력 법칙과 유사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은총만이 예외이다.”

중력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자연 상태 그대로 있다면 위의 힘이 아래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엔트로피)에 의해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 이를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

러면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눈에 명료하게 밝혀보지 않은 채로 남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안 된다”, “인간의 비참함 안에는 신의 지혜의 비밀이 들어 있다. 쾌락은 다르다. 쾌락의 추구는 ... (중략) ... 우리에게 헛됨을 겪게 할 뿐이다. 우리의 한계와 비참함에 대한 응시만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루터, Deus absconditus, 이사야 45:15)이며, 그러하기에 진정한 신이다. 하나님을 감춰진 그대로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Deus revelatus)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희망으로 인도하신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 책과 산책하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강현
(양재A공동체)

“중력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자연법칙에 의해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

이를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의 은총’이다.”

저자는 심연의 영성이 담긴 묵직한 문장들로 깊은 울림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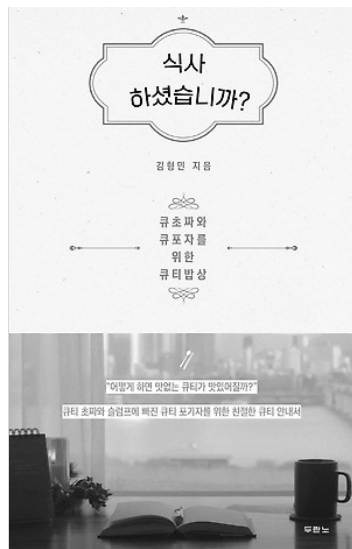
이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서 알게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면서 비판적 성찰의 자세로 읽기를 권한다. 비록 저자가 로마가톨릭 신양인이긴 노동운동가라는 배경이 있지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자기 생각을 적으며 곱씹어 읽는다면 이 책이 신앙의 성장

리스도의 은총’이다.

이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몇 가지 문장을 소개한다. “은총은 채운다. 하지만 은총은 받아들이기 위한 빈자리가 있는 곳에만 들어온다. 그 빈자리도 은총이 만든다”, “지성은 신비에 결코 파고들 수 없다. 하지만 신비를 표현하는 언어가 적합한지 아닌지 알려줄 수 있다”, “사랑은 언제나 더 멀리 나아가려 한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한계를 넘어서면 사랑은 증오로 변한다. 변하지 않

두란노 신간

맛있게 큐티하는 방법



《식사 하셨습니까?》

김형민 저 | 두란노 | 13,000원

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안내한다.

말씀 묵상은 쉽지 않다. 묵상한 내용을 삶에 적용하기는 더 어렵다.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하다. 책 <식사 하셨습니까?>는 큐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도록 도와준다. 매일 육의 식사를 하듯 영적인 식사도 거르지 않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큐티에 대해 알고 싶은 초신자들과 다시 큐티의 기쁨을 찾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추천

레위기를 알아가는 캠핑!



‘레알캠핑’

비했다. 레위기 박사와 불리는 김경열 목사(말씀의 집 대표)가 어디서든 들을 수 없었던 레위기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신앙생활의 규범을 담고 있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레알캠핑은 실제 캠핑장에서 진행된다. 개그맨 정범균 형제와 김경열 목사가 캠핑장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레위기 이야기를 나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레위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레위기에 대한 궁금증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레위기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진다.

레알캠핑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이 우리 삶과 예배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교훈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레위기가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성경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레위기를 더 깊이 알고 싶은 성도들,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지침을 알고 싶은 성도들에게 ‘레알캠핑’을 추천한다. 기독교 OTT ‘풍당’ 앱에서 시청할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업로드한다.

성경일독의 다짐을 무너뜨리는 구간이 있다. 온갖 어려운 용어와 제사법들이 가득한 레위기다. 많은 성도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레위기만 만나면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낀다. 지루하고 어렵다는 평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홀대받는 레위기의 오해를 풀기 위해 기독교 OTT ‘풍당’이 나섰다. 레위기를 알아가는 캠핑 ‘레알캠핑’을 준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갈렙선교학교 수로 간증

쉽 없는 40대를 보냈다. 열심히 달려온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이 50을 바라보며 인생의 후반전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했다. 그러다 문득 20대 때 주님께 드렸던 고백을 떠올리게 되었다. 어디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선교사로 살고자 했던 꿈이 내 안에 다시금 일어났다.

어느 날 후배에게 온누리교회에 '갈렙선교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많이 생각나더라는 말을 들었다. 후배의 말을 듣고 갈렙선교학교 과정과 일정표를 살펴보았다. 나는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또한 몸담은 교회에서 평신도 간사로 청년들을 섬기고 있다. 주중이든 주말이든 따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되었다. 그럴수록 내 안에서 믿음의 의지를 다지고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나의 인생 후반전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강의와 온라인 조별나눔이 못내 아쉬웠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매체에 한정되지 않았다. 온라인 강의와 나눔에도 은혜가 있었다.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내가 갖고있는 선교에 대한 개념과 패러다임이 깨졌다. 이



갈렙선교학교에서 현장견학으로 NGO 피난처(난민 돕는 단체)를 방문했다.

시대에 주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도록 시야를 열어주셨다. 선교는 특정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선교인'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한다는 가르침이 성경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 시간이었다.

비행기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고개를 돌리

면 우리 주변에 선교지가 있다. 우리 가까이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이 바로 그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들과 더욱 거리를 두고 싶기도 했고 그들이 낯설기만 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되신다는 관점에서 그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나 또한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다.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했다.

갈렙선교학교 강사님들의 강의가 감동이었다. 무엇보다 국내외 다문화 선교를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 현장 사례(實例)를 보고 배우면서 그분들의 수고를 체감할 수 있었다.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는지, 때로 비싼 값을 내며 그 시간을 통과해 왔을 수고와 헌신의 무게가 묵직하게 다가왔다. 그 덕분에 많은 이방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했다. 노장인 그가 도전하며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자였고, 다른 사람과 다른 영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갈렙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 특출한 재주는 없어도 충분히 들어줄 두 귀와 따뜻한 가슴이 있다. 사랑을 전하는 눈과 입술, 발이 있다.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오래 단련된 기도의 무릎이 있다. 나와 같은 세대가 갈렙선교학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새롭게 깨어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다음세대와 함께 전진하기를 소망한다.

"네, 주님. 제가 갈렙입니다!"

/ 윤유경 성도(크로스처치교회)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간증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다 무너졌다"(마 7:26-27).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겠습니까? 저 역시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제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아들과 짧게 가정예배를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이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과 이 감정을 나누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다.

우연히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라는 프로그램 알게 되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 없이 신청했다. 아들에게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설명하는 말을 꺼내는 게 어찌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른다. 아들에게 말을 건네고 동네 카페로 함께 걸어갔다. 뜻밖에도 순순히 따라나서는 아



고영미 성도(부천온누리교회)가 아들 오동현 군(초5)에게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렸던 마음은 내가 만들 어낸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서 양육하는 것보다 카페에서 양육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욱 조심할 수 있었다. 평소 단 음식을 잘 먹을 수 없는 아들에게 그날만큼은 음료, 와플, 아이스크림 등을 먹을 수 있는 기쁜 날인 듯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거듭할수록 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느낌보다 속

제하듯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아들을 질타하고 혼을 낸 적이 있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양육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아들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끝까지 마치고 수료하는 성취의 기쁨을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계속 양육했다.

엄마가 만난 하나님에 관해 나눔을 할 때 아들의 표정이 진지해지면서 눈빛이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어느 날 아들이 내게 "엄마, 나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적 있어"라고 말을 꺼냈다. 놀라서 "언제냐?"고 물었다. 아들이 축구를 하며 골을 넣고 싶을 때, 학원에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짧게 기도했다고 한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말했다. 참으로 기뻐했다. 나는 아들에게 "너도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그럼 되었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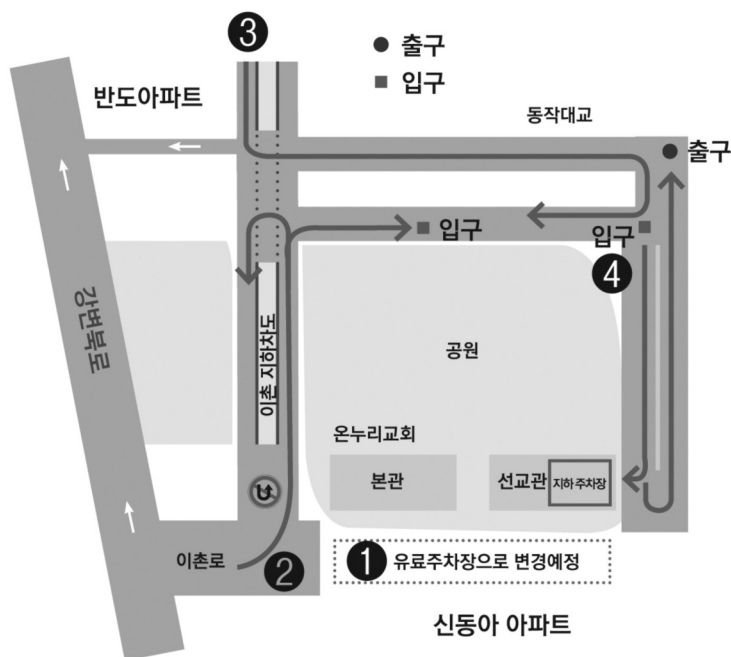
나는 소년부 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도 아들의 신앙교육이 어렵다.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보다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와 가정을 세워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와 가정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조금씩 걸어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자녀와 믿음 없는 남편까지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견고하고 튼튼한 가정이 되리라 믿는다.

/ 고영미 성도(부천온누리교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

온누리교회(서빙고) 주차장 사용 변경 안내



★ 2022년 3월 22일(화) 새벽기도회 시간부터 변경, 시행됩니다.

- 1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관과 선교관 옆 도로는 3월 21일(월)부터 소유주 운영의 **유료 주차장으로 공사**가 시작되게 되며, 완공 후에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 강변북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은 교회 앞에서 **좌회전**해서 교회주차장 입구로 이동해야 합니다.
 - 3 이촌동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은 교회 앞 도로에서는 **유턴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이용하면 안되며, 지하차도 우측도로를 이용하고 좌회전하여 교회주차장 입구로 이동해야 합니다.
 - 4 교회주차장 내에 진입해서는 **일방통행**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되며, 교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출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필히 확인하고 직진하여 출구로 이동해야 합니다.
- + 교회 인근 사용 가능 주차장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동작대교 고수부지 주차장(유료 주차 후 도보 이동)과 거북선 나루터 주차장(유료 주차 후 셔틀 이동)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12월 31일까지

장지원 순장(브릿지33+공동체)은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가 너무 좋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어서 좋고, 하루 읽을 분량도 적당해서 좋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져서 좋다.

장지원 순장처럼 올해 1월 1일 시작한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를 실천하는 성도들의 간증이 풍성하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성경읽기표

를 따라 성경 전체를 1독(讀)하는 과정이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서로에게 동기부여와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장점이 있다.

매일 아침 교회에서 각 공동체 총무에게 성경읽기 링크(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기독 OTT '풍당',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읽기')를 보내주면 총무는 공동체 순장에게 링크를 전달한다. 순장은 순 단체체

팅방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순원에게 성경읽기를 독려하면 된다. 순원은 그날 분량의 말씀을 읽고 순 단체체팅방에 감동한 구절이나 짧은 은혜 나눔 글 혹은 "아멘", "읽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올리면 된다. 성경은 우리말성경 버전(AI기술로 하용조 목사 음성재현)과 개역개정 버전(드라마 바이블)이 제공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16기 이주민 선교학교 개강

3월 24일~4월 21일 목 오후 7시 30분

16기 이주민 선교학교가 3월 24일 개강한다. 오는 4월 21일까지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이주민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미래적 관

점을 주제로 이비오, 이경숙 목사, 박창홍, 전홍렬, 최영조 선교사가 강의한다. 몽골, 미얀마 등 이주민들의 간증도 듣는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5780-8410

젊은부부학교 지원자 모집

젊은부부학교 지원자를 모집한다.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4월 2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 당 10만 원이다. 문의: 010-2086-8210

온라인커뮤니티 상반기 개강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Zoom)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체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지난 3월 15일(화) 개강했다. 온라인커뮤니티 개강예배는 메시지, 합심기도, 플러모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메시지는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 온라인커뮤니티 담당)가 '세상의 소금'을 주제로 전했다. 여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며 꼭 필요한 존

재라고 강조하셨다"면서 "내가 녹을 때 속해있는 가정과 기업, 내 주위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기 온라인커뮤니티 강사진이 풍성하다. 한건수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김숙경 소장(결혼예비학교 강사) 등의 특강을 할 예정이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214

청춘클래스 2기 참가자 모집

대청, 4월 23일, 30일 오후 1시 여의도 정곡빌딩

연애·결혼 코칭 세미나 '청춘클래스'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23일(토)과 30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정곡빌딩 4층(W공동체 예배 처소)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들이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3월 26일까지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cafe.naver.com/youthclass)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청춘클래스 2기에서는 4월

23일(토) 개그맨 오지현, 박상미 부부가 '행복한 이성교제'를 주제로 강의하고, 김승수 목사가 '크리스천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설교한다. 4월 30일(토)에는 손경민 목사 부부(가스펠 '은혜' 작곡)가 '은혜의 만남', 이정선 사모(이재훈 담임목사 사모)가 '좋은 배우자의 조건'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CMN 라파팀 상비약 지원

아프간 특별기여자 17가정 배포

CMN 라파팀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정에 상비약을 지원했다. 안산M센터, 남양주, 김포, 화성 등지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17가정에 진통소염제, 종합감기약, 항생제연고, 어린이 감기약, 구충제, 영양제, 파스 등을 지원했다. CMN 라파팀은 지역M센터, 외국인 쉼터를 이용하는 이주민들에게도 약품을 지원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참가자 모집

3월 26일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6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된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초·중·고 학생 자녀를 둔 부모, 조부모, 차세대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실습(4회)을 하고, 어린이 교재를 활용해

서 12회 양육하는 과정이다. 자녀 이해, 자녀와의 대화법, 어린이 일대일의 비전, 아버지 양육자의 성경적 원리, 교재 활용법 등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3월 25일(금)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4740-9749

2022년 하반기 결혼예배 예약

3월 22일 오후 7시 양재 드림홀

2022년 하반기(8월~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을 한다. 3월 22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지하 2층)에서 추천한다. 결혼예배 예약을 하려면 예비 신랑신부 또는 양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어야 한다. 예비 신랑신부는 반드시 등록교인이야 한다(타 교회 가능). 예약금 50

만 원과 예비 신랑신부의 교인확인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결혼예배 예약은 제비뽑기로 순번을 추천하고 순번대로 결혼예배 날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결혼예배 주례는 온누리교회 목사만 가능하고, 결혼예배는 양재온누리교회에서만 드린다.

문의: 02-570-7505

■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신영진, 조아라 부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부부

젊은부부학교에 오기 전 우리 부부는 다툼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심리상담이나 부부상담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 문제의 모든 원인이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젊은부부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걱정이 있었다. 웬지 성경적인 부부상담은 뻔한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무조건 남자인 내게 참으라고 할 것이고, 줌(Zoom)으로 하는 나눔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 앞에서 나누면 무엇이 바뀔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강의를 듣고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누군가 한 명은 아내를 혼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젊은부부학교에 참여하게 했다.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났는데 크게 와닿지 않았다. 책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읽다가 던져 버렸다. 책에서도 내게 무엇인가 하라고 요구하는 게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내게 무엇인가를 더 하고, 아내를 위해 사랑의 언어를 채워주라는 말에 지쳤다. 내 기쁨이 바닥났는데 아내의 탱크를 채워주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났다. 내게 자꾸만 무엇인가를 더 하라는 젊은부부학교가 의미 없다

고 생각하고 그만두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젊은부부학교 3주차 강의를 들었다. 그 강의에서 내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강사님께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도 부부관계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실 때 큰 공감이 됐다. 내가 남편이 아니라 남자로 부부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까지 아내를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 부부 문제를 항상 회피했고, 아내에게 “너만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 부부는 문제없어”라는 식으로 접근했다. 부부가 서로 연합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나만 생각했던 것을 회개했다.

젊은부부학교에 참여했던 4주 동안 부부가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부부의 연합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연합, 가족의 연합을 원하신다. 사탄이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부부가 될 것이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AK 선교사(러시아)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러시아 A 도시에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일예배, 차세대, 청년 공동체, 기도모임, 성경공부, 두 소그룹, 남성 예배, 여성 예배, 일대일제자양육과 QT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공동체가 한 지역에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마을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씨름교실도 기도를 부탁드린 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크리스천 아이들을 위한 씨름 교실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매시간 기도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교실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4월 중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아이들을 위한 한류 문화교실을 열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 문화가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잘 활용하면 전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난타, 사물놀이, 한국어 수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주시고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사회선교도 시작했습니다.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역에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WAR’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경제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크리스천들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군사작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를 반대하고 있고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와 사회선교를 위해 재정이 필요한데 해외로 송금조차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협적이고, 국민들은 ‘특별군사작전’과 경제제재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유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모두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해주시고요.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이승희 성도(송파A공동체)

하나님을 알고 달라진 나

남편과 함께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린 지 1년여가 되었을 때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지난해 겨울,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님과 처음 만났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핑계로 일대일제자양육이 미뤄졌는데 무사히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기 전후 내 모습이 너무 다른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첫째,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하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는다.

둘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미워하는 마음,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바라는 착한 마음과 행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셋째, 경건 생활을 고심하게 되었다. 물질적인 욕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 안에 욕심이 차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고 있다.

넷째,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나를 발견한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의지, 생각, 나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알고서는 세상 모든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항상 죄 많은 사람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 같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와도 나누고 싶다. 성준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도록 양육하고 싶다.

양육자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바른 마음과 생각을 키울 수 있었다. 교회 공동체에 처음 들어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양육자님은 하나님이 보내준 분이다. 양육자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일대일제자양육 시간이 육아로 지친 나에게 힐링이 되었던 것도 감사하다. 이 배움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고 싶다.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

■ 온누리 전도학교 수료 간증



/ 고용 집사(양천공동체)

그리스도의 러브레터 배달부

지난해 온누리 전도학교 훈련생으로 참가했다. 온누리 전도학교 조장으로 섬기는 아내를 보고 신청했다. 2년 전 온누리 전도학교에 입학해서 훈련생 과정을 지나고 조장으로 섬기는 아내가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나도 그 행복을 경험하고 싶었다.

아내가 경험하는 최고의 행복을 나도 경험할 수 있었다. 그 행복은 온누리 전도학교의 ‘5분 전도문’에서 시작된다. 5분 전도문의 시작은 접촉점 질문이다. “선생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와 같은 질문으로 전도자의 마음을 두드린다. 나 역시 영원한 행복을 좇는 사람이었기에 그 질문을 깊이 고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원한 행복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본래 행복한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일생일대의 최고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불행의 원천인 죄의 삿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다. 창

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솟아나는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나와 같은 죄인을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신다. 회복의 은혜로 지금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거룩한 전사들이다.

온누리 전도학교를 졸업하면 복된 소식을 수많은 이웃에게 전심으로 전할 계획이다. 쉽지는 불안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의 두려움에서 어찌할 바 몰라 헤매고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을 전하고 싶다. 온통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내 삶부터 돌아보려 한다. 죄의 근원인 불순종을 단호히 회개하고, 사랑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자 한다.

온누리 전도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심화하는 과정을 가지려 한다. 5분 전도문, 반대질문 대처 방법 등 실효성 있는 전도 수단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땅끝까지 은혜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믿음의 배달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디아스포라 교육 선교

민문기 장로
(신용산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교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셨다.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이 흠으신다’라는 뜻과 ‘씨앗을 뿌리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이주민, 유학생, 탈북민, 난민들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선교 계획은 기묘하시며(사 28:29), 우리 교회도 ‘디아스포라를 향한’ 또 ‘디아스포라와 함께 하는’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 왔던 이주민, 신학생, 유학생, 전문인들은 본국에 돌아가면 교회 개척을 함께 한다. 최근에 한국의 신학원과 협력하는 인도의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BDM(Bible, discipleship, Mission) 과목을 강의하게 되었으며 네팔과 캄보디아 신학 과정에서도 시작하게 되었다. 네팔의 신학교 학장 벤자민은 한국에서 신학생으로 공부하며 남양주온누리교회를 섬겼다. 돌아가서 신학교를 개척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하였다.

신학교에서 BDM 과목을 소개하면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다. 아마도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섬긴 인도 신학생 한 명은 네팔에 교회 개척을 하여 교회를 제자훈련 센터로 삼아 가르치고, 배우고, 제자 삼고, 선교하고 있다. 인도와 네팔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를 보게 된다.

특히 신학생들은 일대일제자양육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신학생들은 물론이고, 신학교 학장들도 일대일제자양육을 받고 싶어 한다. 그 때마다 온누리교회의 든든한 동역자들이 나선다. 미국 비전교회를 포함하여 온누리교회 장로님, 선교사님, 집사님들이 팀이 되어 현지 신학생들과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하면 섬세한 성령님의 터치가 계속된다.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공동체와 교회가 되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신학생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디아스포라 교육 선교가 복음 통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평양 대부흥 때와 같이 아시아의 교회들은 마음이 가난하며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느껴진다. 또한 그들은 한국의 교회들을 롤모델(role model)로 삼고 배우고 싶어 한다. 한국과 협력하여 인도, 네팔, 캄보디아 등지에서 시작한 복음의 파도가 중국 교회와 함께 동진하여 북한에 교회를 세우며 통일한국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음의 파도로 퍼져 나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가지고 온누리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주민, 탈북민, 난민, 선교지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같이 교제하며 삶을 나누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다. 이 씨앗이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란다.

신앙에세이

감사의 회복

주하늘 전도사
(SNS청년부)

몇 해 전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한 직후 제자들이 로마인들을 피해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해 옮겨온 이베리아 반도 끝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도보 순례길이다. 여러 코스 중에서 나는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부터 시작해서 800km의 여정을 걸었다. 약 10kg의 배낭을 메고 매일 20km를 걸어가는 여정이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가방이 무거워서 내 어깨를 짓눌렀고, 굵은 날씨에 컨디션이 계속 떨어졌다. 발에는 물집이 겹겹이 생겼고, 적은 예산으로 인해 음식도 변변치 않았다. 그렇게 하루 이를 후회를 반복하던 중에 어느새 변화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콜라 한 모금이 너무 귀했고, 점심 도시락으로 가지고 다니던 삶은 달걀 한 알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다른 순례자가 건네준 굴 하나에 깊이 감동했다. 숙소의 불편한 2층 침대도 누워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따뜻한 물에 손빨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다.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모든 것이 변했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했던 지치고 힘든 마음이 사라지고 매 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그렇게 산티아고 순례 여정을 마무리했다.

한국에 돌아왔다. 편한 일상을 보냈다. 비록 작지만 먼 거리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는 것, 매일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음식과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 항상 뜨거운 물이 나오는 화장실이 있는데도 나는 감사하지 않았다. 차가 있음에도 도로가 막힌다고, 적당한 음식이 있음에도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매일 고되게 걸어 다닐 필요 없이 편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조차 힘들다며 불평하기 시작했다. 길바닥에 앉아 삶은 달걀 하나를 먹어도 감사하던 나였는데 어느새 감사가 사라졌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불평하곤 한다. 삶의 빈칸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는다.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먹지 말라”고 하신 딱 한 가지를 먹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다. 우리는 욕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를 바라보며 불평하기보다 주어진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흔히 인생을 길(道)에 비유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하나님 부르심의 상’이라는 쫓겨난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고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힘들고, 지치고, 고통이 따르는 길이다. 그 길에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갖지 못해서 욕심내는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생명과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위한 희생을 기억한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사를 회복하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딸아, 우리 가정에 첫째로 태어난 너는 지금까지 아빠 엄마에게 참 많은 기쁨을 주었다. 어려서부터 이해심이 많고, 생각의 폭이 넓어 엄마의 의는 상대가 되어주고 친구도 되어 줬지. 결혼해서는 지혜롭게 가정을 꾸려가는 널 보면서 엄마는 많은 것을 배우곤 한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기에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온다.

너도 알다시피 이 엄마는 너희 남매를 다 키워 떠나보내고 네 아버지와 함께 복음 전하는 자로 헌신하며 사는 비전을 갖고 있었지. 어느 할머니들처럼 나도 손주가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손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할 수 없다며 손주를 맡길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며 잘라 말했다. 다행히 인우는 생

후 2년 동안 제 친할머니 손에서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 그런데 그 뒤부터는 우리가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 우리의 생활방식이 짬짬이 인우 중심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제야 고백한다만 그때 우리가 손자 키우는 일에 묶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영 멀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조바심에 염려와 갈등을 안고 기도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비전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멀리 바다를 건너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까이 있는 네 손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구나. 손자를 키우면서 아기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할 뿐 아니라 마땅히 자녀에게 전해야 할 임무라 여겨졌다. 나는 저녁마다 주일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인우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암송했지. 몇 번만 들으면 금세 머리에 입력되는 아이를 보면서 백지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게 어찌나 신기하고 감사하던지 내 입가에 미소가 고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의 일이다. 나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인우에게 복음을 전하며 인우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예식을 가졌

다. 녀석은 언제 물어봐도 “예수님은 살아나서 지금도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천국에 간다”고 또박또박 말해서 나를 기쁘게 했다.

너는 우리에게 아이 하나 맡기는 것도 미안하다며 둘째 출산을 주저했었지. “힘에 버거우면 돕는 사람을 두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인우 동생을 가지면 좋겠다”는 내 말에 순종해서 예쁜 지우가 태어났지. 지우를 낳지 않았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고 우리 가족 모두 무척 기뻐했다. 지우가 4살 때 상추와 깻잎쌈을 먹는데 “난 나뭇잎은 싫어요”라고 말해서 우리를 한바탕 웃게 했다. 깻잎을 나뭇잎으로 본 꼬맹이 손녀가 무덤덤한 네 아버지의 입가에 함박웃음을 선물해 주었지. 지우는 “할아버지 댁 새가 제일 좋아”라면서 품에 꼭 안기곤 했다. “어느 연인인들 당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라면서 우리는 행복해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전 3:1)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것 같구나. 손주들을 키우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얼마 전 송 서방의 해외 지사 파견

과 함께 너희 가족들이 우리 품을 떠났지. 이제 너희 부부가 전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었다. 낯선 땅에서 전업주부, 전업 엄마로 탈바꿈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자녀를 위해 물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하나님이 너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인도함을 받는 삶이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쉼과 회복,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너희는 아이를 키워 준다고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섬겨 줬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희에게 더 감사하고 있다. 인우와 지우가 훗날 “나의 믿음이 먼저 나의 외조모와 나의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딤후 1:5)고 고백하는 디모데 같은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갔으면 한다. 하나님께서 이 어미를 축복하신 것 이상으로 너를 축복하시며 자손의 자손을 축복하실 것을 믿는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한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 는 안 됩니다”(9-10절).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갈라진 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떤 의사들은 진찰할 때 꼭 혀를 내밀어 보라고 했습니다. 혀의 색깔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건강상태를 진단했던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건강도 혀를 통해서 체크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건강은 우리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다른 형제를 저주하는 모습 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형제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반드시 혀를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언어 패턴으로 변화됩니다. 혀의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가야 제단 숯불로 입술을 태웠듯이,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진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사 57:19, 개역개정).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라면 말한 대로 창조의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면 그 말에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영혼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혀의 권세를 사용해서 창조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을 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쓰신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늘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는 위로자, 상담자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둔난 피조물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의 역할대로 위로와 격려, 상담과 회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미국 국회에는 고아가 가정위탁 보호를 지나 사회로 나아가 갈 때 몇 사람을 인턴으로 세워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한 상원의원이 한 젊은이를 인턴으로 채용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출근해서 우편물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원의원이 그 젊은이에게 인사하면서 “자네 참 대단하네. 우편물실이 이렇게 깨끗한 적이 없었는데, 자네 참 일을 잘하네”라고 했습니다. 몇 분 후 그 의원은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네 괜찮나? 내 말이 거슬린 것이 있었나?”라고 물었더니 젊은이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원이 다시 “그러면 왜 눈물을 흘리나?”라고 물었더니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어느 중환자실에 두 사람이 한 병실에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하루에 1시간씩 상반신을 일으키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침대는 병실에 유일한 창가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종일 누워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창밖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몇 시간

씩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과 일, 군대 갔던 이야기, 휴가 갔던 이야기, 삶의 모든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가에 있었던 환자는 상반신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보이는 세상에 대해 누워 있는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가의 환자에 의하면 창밖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공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리와 백조 때가 물가에서 노닐었고, 아름답고 거대한 고목들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끔 공원에서 피레이드가 있었고 아이들과 많은 젊은 연인들이 노는 등 행복한 모습을 계속 전달해 주었습니다. 누워 있는 환자는 날마다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삶을 소망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창가의 환자가 숨을 거둔 것을 간호사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자듯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마 후 누워 있는 환자가 자신의 자리를 창가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움직이기 힘든 몸이지만 한쪽 팔꿈치로 상체를 지탱하고 가까스로 창밖을 내다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뿐이었습니다. 놀라서 간호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창가에 있는 환자가 나에게 멋진 창밖 세상을 말해줬는데 그것이 다 거짓이었습니까?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간호사는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벽조차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워 있는 당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혀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타락한 마음의 악독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옛사람의 모든 영향력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우경 장로
(사회선교부
한터공동체)

“북한분이시죠?”

몇 년 전 내원했던 환자에게 아는 체를 한 적이 있다. 반가운 마음에 물었는데 그분은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알아보는 나를 경계하는 표정을 보였다. ‘아차!’ 탈북민들과 몇 년을 지내고도 이런 실수를 할 정도로 우리는 탈북민들을 잘 모른다. 정말 형용하기 힘든 고난을 뚫고 한국에 오기까지 그들이 받은 상처와 두려움을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다. 얼굴이 온라인상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들이 남한국민이 되었다고 알려질 때 북한의 가족들이 겪게 될 박해에 대한 부담감, 모든 것이 생소한 한국 생활의 압박감과 소외감, 낯선 땅에 홀로 내쳐진 데서 오는 극심한 외로움 등은 모든 탈북민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이다.

정신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한자와 영어를 접해본 적이 없다. 처음 한국에 와서 길거리의 여러 간판을 보고 느끼는 당

혹감이 상상되는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탈북민들이 남한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벽 앞에 서는 것이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다음 초기 정착 자금과 임대주택을 제공받고, 기초수급자로 약간의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끝이 없다. 자유가 주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방이 꽉 막혀있다. 그래서 탈북민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그들을 노리는 사기와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90년대 후반부터다. 북한의 경제 사정 악화로 갑자기 배급이 중단되면서 약 5년 동안 아사자 33만 명(대한민국 통계, 미국 통계청은 50~60만 명 추산)이 발생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철의 장막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의 탈북민사역은 9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탈북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경제적 지원, 탈북민 예배, 대안학교와 취업 지원 등의 사역을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탈북민사역은 주선에 교수님이

만든 기도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지금은 서빙고(한터), 양재(하나), 부천, 남양주, 대전 캠퍼스에서 탈북민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터공동체는 가양동에 있다. 2010년 탈북민 임대주택이 많은 강서구에서 그들을 품기 위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예배공동체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탈북청소년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역이 중심이었다가 그들이 성인이 되고부터는 (새로 입국하는 탈북청소년들이 거의 없다) 성인 중심의 사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탈북민들은 정감 있는 관계를 원한다.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한다. 한터에서도 주일예배와 순예배를 드리고 남북한 지체가 같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 전통이었다. 자원해서 점심을 준비하러 오시는 성도님들, 매월 한터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이들의 장학금을 후원해주는 권사님들, 탈북학생들의 과외를 지원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는 성도님들, 젊은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성도님들, 탈북민들의 외로움을 달래 주기 위해 집에 데리고 가서 함께 자면서 교제하는 성도님들의 헌신 덕분에 한터가 존재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대면 사역이 중단

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부분에서 타격을 입었다. 비대면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탈북민들은 대면예배를 지속하는 탈북민교회로 이동했고,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도 많이 위축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도 한몫했다.

탈북민들은 하나님이 통일 전에 먼저 이 땅에 보내준 ‘통일의 마중물’이다. 탈북민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알아가고 배우지 않으면 통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 몇 년 전 CGNTV에서 탈북민들이 참여한 토크쇼를 본 적이 있다. 한 출연자가 “탈북민들에게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우리를 신뢰하기까지 기다려 주면서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탈북민사역의 기초가 아닐까 생각한다. 탈북사역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사역을 함께 할 남자 성도의 부족이다. 서두르지 말고 그들이 마음을 열기까지 조용히 탈북민들 곁에 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웃고 울어줄 성도들이 필요하다. 한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배우고, 교제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한다.

문의: 02-3463-9686(9호선 가양역 6번 출구)

“탈북민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풍당 콘텐츠와 함께하세요.



다큐멘터리

창세기는 역사인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홍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아가는 창조과학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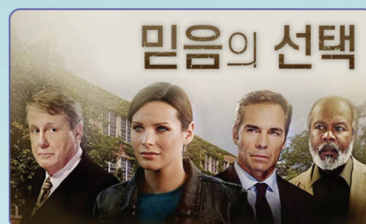
총 4편



영화

믿음의 선택

진화론을 가르치는 생물학 교수의
영향으로 신앙에서 멀어지는 딸을 위한
아버지의 선택



풍당 키즈

놀라운 창조세계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설계한
놀라운 창조 세계를 찾아 떠나는 모험



총 5편

'풍당' 시청방법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기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풍당' 검색 후 다운로드



스마트TV로 시청하기
LG, 삼성 스토어에서
'풍당' 검색 후 설치



PC로 시청하기
www.fondant.kr

문의 02-792-0691